

광양제철-포철공고 ‘승부조작’ 사실로

축구협, 양팀 감독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

고교클럽·초중고 리그 왕중왕 출전 박탈도

대한축구협회는 SBS 고교클럽 월린지리그 B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광양제철고가 포철공고에 1-5로 진 것은 승부조작이라고 판단하고 두 팀에 징계를 내렸다.

대한축구협회는 상별위원회는 16 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9 차 상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팀 감독들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사실로 입증됐다”며 “광양제철고와 포철공고의 감독에게 무기한 자격정지를 내리고 두 팀은 물론 월린지리그와 초중고리그 왕중왕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양제철고와 포철공고, 금호고 축구부 감독을 축구협회로 소환해 진술을 받았고, 3시간에 걸친 마리온 회의 끝에 이런 징계를 확정했다.

오세권 상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시 심판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조사를 펼쳤다. 두 팀의 경기가 다른 팀들의 경기보다 7분 정도 늦게 시작한 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됐다”며 “모든 경기가 오후 3시에 킥오프돼야 하는데 심판진이 빨리 그라운드로 들어오라고 종종했지만 두 팀 모두 시간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감독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했다. 금호고와 광양제철고 선수끼리 ‘벌써 입소문 났네, 캐’라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조만간 두 감독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 받은 날로부터 일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양제철고는 지난 11일 치러진 포철공고와 대회 조별리그 12라운드에서 1-0으로 앞서다 후반 34분부터 9 분 동안 무려 5골을 내줘 1-5로 역전 패했다.

같은 시간 치러진 광주 금호고와 울산 현대고의 B조 최종전에서 금호고가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결과로 광양제철고(7승2무3 패·승점 23)와 울산 현대고(6승3무3 패·승점 21)가 B조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포철공고(6승2무4패·골득실

+7)와 금호고(5승5무2패·골득실+6)는 나란히 승점 20점으로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에 앞선 포철공고가 3위가 돼 각주 1~3위까지 주어지는 연말 전국중고 축구리그 왕중왕전 출전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난 뒤 축구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광양제철고가 포철공고에 일부러 저꿨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축구협회는 지난 13일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공동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공동조사위원회는 당시 경기의 경기감독관과 심판들은 물론 양팀 감독과 선수 등을 대상으로 조사 활동을 펼쳤고, 결과를 상별위에 통보해 이날 관련자 진술을 받은 뒤 징계조치를 내려졌다.

/연합뉴스



볼 다툼

FC바이에른 뮌헨의 토마스 뮐러(오른쪽)가 16일(한국시간) 뮌헨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E그룹 경기에서 AS 로마의 다니엘 데 로씨 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축구 발전 상생하자”

조광래-홍명보-이광종 연령별대표 사령탑 회동

“연령별 대표팀 코칭스태프가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조광래(56) 축구대표팀 감독과 홍명보(41) 을립픽 대표팀 감독, 이광종(46) 19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감독이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상생의 결의를 다졌다.

조 감독과 홍 감독, 이 감독을 비롯한 각급 연령별 대표팀의 코칭스태프 전원은 15일 오후 파주NFC에서 조종연 대한축구협회장과 함께 상견례의 시간을 가졌다. 조 감독이 부임한 이후 각급 대표팀 코칭스태프 전원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감독은 17일 전날 모임에 대해 “청소년대

표팀 선수가 아시안게임은 물론 A대표팀에서도 뛸 수도 있는 만큼 각급 대표팀 코칭스태프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돋자는 취지에서 모였습니다”며 “서로 경기를 분석해주고 장단점을 조언해주는 좋은 관계를 만들자고 의기투합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지도자들이 앞으로 A대표팀과 을립픽 대표팀을 맡을 가능성도 높다”며 “김필한 협체 채제를 구축하는 게 한국 축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서로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자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선 내년 1월 아시안컵과 오는 11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두 대회 모두 뛸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포철공고(6승2무4패·골득실

있는 기성용(21·셀틱)에 대해서도 조 감독과 홍 감독이 의견을 나눴다.

조 감독은 “예전부터 홍 감독과 얘기를 해왔다. 축구협회 차원에서도 셀틱에 기성용을 두 대회 모두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며 “군 헉백을 받을 수 있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 기회가 되면 아시안컵까지 나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기성용이 두 대회를 모두 뛸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소속팀에서 출전기회가 적은 기성용이 대표팀 경기에 많이 나서면 셀틱에도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전국 어르신들 건강 ‘무한 도전’

생활체육대회 29일 익산서 개막 광주·전남 선수단 670명 참가

실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친선과 화합의 한마당 ‘2010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29일 익산에서 개막한다.

29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내달 1일 까지 3일간 진행되며 ‘실버건강! 무한도전’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번 대회에는 16개 시·도에서 1 만여 선수단이 출전해 축구, 배드민턴, 자전거, 국학기동 등 17개 종목에서 경쟁을 벌이게 된다.

200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

민생활체육회 최우수회원단체상 수상 등으로 생활

체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전남은 이번 대회에서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의 홍보활동을 하면서 전남 알리기에도 나선다.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여건 조성과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친선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다. 또 동호인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대회 참가 재한을 2년으로 규정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세돌, 이창호에 7년6개월만에 승

물가정보배 결승 3번기 제2국서 불계승

다.

랭킹 1위 이세돌과 최다관왕 이창호는 명성에 걸맞게 수준 높고 화끈한 경기를 펼쳤다.

초반부터 난해한 전투가 이어진 바둑은 흑백 큰 충돌과 타협이 리드미컬하게 이어졌다. 좀처럼 불가리가 결정되지 않은 바둑은 중반 좌상 귀에서 벌어진 패싸움을 이긴 후 실리에서 흑에 자율주가 기울어졌다. 이후 반면 10집의 차이가 이어지자 차 이를 즐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창호가 돌을 던지면서 승부가 끝났다.

이세돌은 이날 승리로 이창호와 결승에서 첫 완승을 거두며 역대전적을 23승31패로 휘둘렀다.

이세돌은 우승 직후 “바둑 내용은 나쁘지만 결과가 좋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 후 “대국장까지 응원은 아내가 큰 힘이 되었다. 우승의 기쁨을 아내에게 전하고 싶다”며 아내 김현진씨에게 공을 돌렸다. 6개월의 후직을 끝내고 올 1월에 바둑계에 복귀한 이세돌은 4월에 비씨카드배에서 우승한 데 이어 5개월 만에 타이틀을 추가하며 2관왕에 올랐다. 통산 32번째 타이틀이다. 우승 상금은 3000만 원이다.

/연합뉴스

사원 모집

당사는 전복통조림 및 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회사로서 폐적한 환경에서 세제를
향해 꿈을 펼치실 인재를 찾습니다.

식품가공관련 - 간부직

- 자 격 : 식품가공 관련 전문 경력자
- 인 원 : ○명

식품 가공관련 - 연구직

- 자 격 : 식품, 가공 관련 대학 졸업자
- 인 원 : ○명

주방 - 사원

- 자 격 : 60세 이하 여성분, 식당 경력자 우대, 공장에서 숙식기능 하신 분.
- 인 원 : ○명

급여 - 최고 대우, 상담후 결정

위 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990-1
전화번호 : 061)552-1038 / 010-3587-1836
FAX:061)552-1037

(주)씨푸드완도공장

www.daewontour.com

★ 기차여행 · 성지순례

★ 골프투어 · 허니문

(주)대원여행사 062) 526-7000

www.daewontour.com

해외 트래킹 출발단 모집

★ 기차여행 · 성지순례

★ 골프투어 · 허니문

(주)대원여행사 062) 526-7000

www.daewontour.com

회사현장·주거제작 및 건설인양도공고

(주)세우미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기로 하여으로 “(주)세우미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회사입니다.”

제작현장과 결의하고 그 수반하는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암수경우수를 통하여 그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